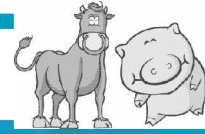


소· 돼지 가격전망



소

당분간 약보합세 유지



5월은 가장의 달이다. 명절이 후 최대의 성수기에 접어들었다. 월초 어린 이남, 이베이남 등 성수기를 맞이해 수요증가로 인해 하락세가 주춤하고 상승세를 보였다. 한미FTA 타결

과 함께 그 동안 일일 계속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보도 영향 때문인지 일부농가의 동요로 조기출하양상을 보이면서 지난달 말 존하물량이 증가해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수입물량이 적을뿐만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있다. 유통이 된다 하더라도 이번 수입물량은 인기부위가 빠진 소량으로 공급이 부족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유통업체들이 소 산지가 하락세를 소비시장에 본격 반영하고있어 향후 한우고기소매 활성화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우고기 판매가 인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소 값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과 수입품목이 최대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큰 폭의 하락없이 약보합세의 흐름속에 등락을 보일 전망이다. 일선농가에서는 흉수출하를 자제하고 적기출하를 통해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돼지

가격 강보합세

5월 계절적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돼지 값이 미약하나마 조심스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출하물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돼지고기 최대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산지의 새끼 돼지가 소모성질병으로 인해 폐사율이 증가해 출하 물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이맘때 가격이었던 4천원선까지 자고 오르지 못하고 3천원 초중반대 가격에 힘겹게 자리 잡고 있어 답답하다. 이는 계속되고 있는 전반적인 내수 경기 침체와 올해 들어 급속히 늘어난 지가의 수입산 돼지고기가 국내 시장을 계속해서 잠식함으로써 국내산 돼지고기의 판매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큰 이유로 판단된다. 국내산 돼지의 존하물량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여부에 상관없이 소모성 질병에 의한 존하물량 감소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포화상태에 놓여있는 지가의 수입산 돼지고기의 국내시장 잠식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돼지 값은 수요는 많지 않지만 출하 물량이 워낙 적어 강보합세의 흐름 속에 3,300원대를 축으로 등락을 보이는 양상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미트뉴스 제공>

